

도민 100명 중 8.7명 우울증

제주도 우울증상 유병률 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민 100명 가운데 8.7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 의과대학(책임연구자 박은옥 교수)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750가구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표(CES-D)를 이용해 면접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울증상 유병률 조사 결과’를 2월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울증상 유병률은 8.7%로, 여자(9.7%)가 남자(7.8%)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영등포구와 도봉구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영등포

구 10.2%, 도봉구 12.4%보다 각각 1.5%포인트, 3.7%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洞)지역이 6.9%로 가장 낮았으며, 서귀포시 동(洞)지역은 11.8%로 가장 높았다.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각각 11.2%, 11.3%로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은 5.1%인 반면에 사별하거나 이혼, 별거중인 상태는 21.0%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100만원 미만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20.3%로, 월 300만원 이상(5.3%)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또 매우 마르거나(30.4%), 체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24.1%),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34.5%), 가족생활에 불만이 높은 경우(31%) 등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게 조사됐다.

제주도는 우울증 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자가 우울진단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 등을 중심으로 우울증상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대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08 K리그의 대장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개막전 모습.

제주 Utd 9일 월드컵경기장서 개막전



SK에너지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3년째 추진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9일 오후 3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08 K리그의 대장정에 나선다.

제주의 홈 개막전 상대는 잉글랜드 축구 유학에서 돌아온 장외룡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

올 시즌 제주는 브라질 출신 알툴 감독이 새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조용형, 구자철, 조진수, 이상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기량을 갖춘 신인 선수들의 가세로 전체적인 전력이 강화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전 행사와 하프타임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경기장 앞 광장에서 음식축제 한마당, Fun&Joy 슷돌이, 서바이벌, 유소년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식전 행사가 이어지면서 개막전 분위

를 한껏 달궂을 예정이다. 하프타임 이벤트로는 행복날개 유소년축구팀의 미니 축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입장객을 대상으로 닌텐도DS, MP3, 기타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전달된다.

한편 SK에너지(주)는 2006년 10월부터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비롯해 ‘행복한 문화나들이’ 등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을 추진,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세미나
시설탐방서부중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재활승마·소식마당
방학중프로그램·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기고·독자의소리
- 특집 7면
노인장·요양보호 정책토론회

“아동 성폭력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될 사회악”

김태환 지사 '제2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메시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는 2월 22일 '제2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메시지'를 통해 “아동 성폭력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특별한 날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비극”이라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떠올릴 때

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피해 어린이가 생겨나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정은 보육시설과 관련 기관을 통한 성폭력 예방활동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은 이 땅

에서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살아숨쉬는 자연의 모든것을 드립니다.

내고향 제주!
토종할인점 우리마트는 항상 새롭습니다.

첫째, 고객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둘째, 단 한 품목을 팔더라도 건강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쇼핑만족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든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마트

●도남점 T. 724-7000 ●신제주점 T. 727-5000



△ 2월 13일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배근 한국청소년상담원장이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청소년 중심적인 대책 필요”

이배근 원장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 위한 대안교육 마련돼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청소년상담원 이배근 원장은 “위기청소년 대책은 정부 관련 부서의 청소년 업무 통합과 조정을 원칙으로 일관성 있는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2월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기초강연을 통해 “위기청소년 대책은 청소년 중심적이어야 하며, 어른의 시각에서 만이 아닌 청소년의 시각과 의견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집단 수용보호 시설이 아닌 친가정환경에 가까운 그룹홈 등이 우선돼야 하며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대안교육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은 청소년의 일차적 환경이며 가정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청소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다양한 가정지지, 보완, 대리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문제 대부분은 가정 문제로부터 출발하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문제가 학교 발생적”이라며 “학교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곳,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신나게 가고 싶은 곳이라는 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책은 청소년의 현실을 성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기성세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아울러 청소년 권리의 최우

선 원칙의 존중과 청소년을 변화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바라보는 입파워먼트의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CYS-NET 구축과 청소년 동반자 활동 ▲서귀포시 아동보호체계(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 양순도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CYS-NET)의 지역화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및 협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 나아가 협력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CYS-NET의 운영에 대한 내실화에 서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노인장기요양비용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부가세도 면제

노인장기요양비용이 올해 연 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2일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권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314만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쓴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약 324만원이다. [(314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3%)] = 324만원

또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24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본인 부담금은 14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9대 사회복지사협회장에 한형범씨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한형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사진)이 선출됐다.

2월 2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한형범씨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25표를 얻어 회장에 선출됐다. 한형범씨는 “도내 사회복지

지사 4500여명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복지사의 보금자리인 회관 건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로 3년이다.



신관홍 부회장 우수조례심사개인부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신관홍 부회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사진)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4회 우수조례심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신관홍 부회장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등 4건의 우수조례를

발의해 개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희망2008나눔캠페인 유공자 포상·배분사업비 전달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2월 2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희망2008나눔캠페인’ 유공자 포상 및 2008년도 배분사업비 전달식(사진)을 캠페인 유공자, 사회복지시설·단체 기관장 및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 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지난해 태풍 ‘나리’ 수해 피해 특별모금 및 ‘희망

2008나눔캠페인’ 기간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사 가운데 방송사 4곳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2008년도 배분사업비 전달식에서는 신청사업(41곳), 제안기획사업(3곳), 중장기테마기획사업(2곳)으로 선정된 46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6억여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원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강화봉 사무국장이 교육했으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회계교육은 공동모금회 감사인 고영민 공인회계사가 실시했다.



한동휴 회장은 “올해에는 22억원의 모금목표를 가지고 연중모금을 계속 실시한다”며 “기부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도민 모두가 기부에 참여할 때까지 공동모금회 임직원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장애인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

26일 마감·제28회 장애인의날서시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등 수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상인원은 장한 장애인대상 1명,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 등 4명이다.

행정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회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 제주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며, 시상은 제28회 장애인의날 행사 때 이뤄진다.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담당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장한장애인대상이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비장애인에겐는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을 이뤄나가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탐방

(4)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관, 찾아오는 복지관

봄이 오는 길목,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을 찾았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섬김·나눔·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어울림 배움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운영 이 관장 "지역사회 역동성 발굴하는 대변자 노력"

이 관장은 "2003년 4월에 문을 연 이후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종합복지관의 위기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지만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기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의 조직화,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발굴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다채로운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족복지사업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한국문화 등을 가르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울림 배움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가족역할 대행프로그램인 멘토링사업 등이 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문강사를 통한 풍물교육을 받은 뒤 시설·기관 및 복지행사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실버풍물·예술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TV 방송사와 인터넷 신문에 프로그램을 기획, 보도하는 '사회복지 굿뉴스(Good News)'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대중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인식 개선을 홍보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사업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무료진료를 하는 의료서비스와 소문난 밥집 경로식당, 이동목욕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문화사업으로는 심성개발 및 공동체 훈련, 지역의 기관조사, 인물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 꿈·비학교(꿈과 비전이 있는 학교),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춘대학, 지역내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체 생활과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아동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2의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관, 찾아오는 복지관'을 강조하는 이 원장은 "항상 지역 주민이 찾는 그 곳에서, 욕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복지센터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는 지역사회가 당면시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밑바탕에 저희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늘날 지역사회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

문의 064-796-9091~3.

〈이명자 명예기자〉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제주도, 2008년도 보육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올해 처음으로 일반가구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2일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함께 행복한 제주'라는 보육비전 달성을 위해 2006년 마련된 '제주새 싹플랜'을 기초로 2008년도 보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공보육 기반 조성을 비롯해 부모 육아 부담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총 6개 과제·35개 사업이다.

총 투자액은 81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156억원)가 증가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지

난해에 비해 평균 3% 늘었으며, 영아보육 활성화와 민간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아기본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해 평균 21.8% 인상 지원된다.

제주도는 특히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올해부터 도내 일반가구 셋째아 이상 만1세 아동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종사자 능력향상비를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화로 말하는 영상전화기 보급

서귀포시, 농아인가구 등에 100대 설치

서귀포시는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인가구에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연결하는 수화로 대화가 가능한 영상전화기<사진> 100대를 설치했다.

서귀포시는 수화가 가능한 농아인들이 공공기관 방문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반영, 서귀포시청내 3곳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센터 17곳, 경찰차출소 7곳,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 9곳, 자원봉사자 가구 등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함께 사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영상전화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최신 제품으로 화면이 넓고 선명도가 뛰어나며 일반전화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도 3000원으로 부담이 적어 농아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와 연계해 아직까지 수화를 배우지 못한 농아인들을 찾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상전화기 설치를 확대해 농아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무용지 조달가격 기준으로 인하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2월 1일부터 A4 복사용지를 비롯한 모든 사무용지를 조달가격 기준으로 인하했다.

원지는 기존의 고급원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판매가격을 인하여 실질적인 가격 인가가 이뤄진 것이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장애

로 인한 생산능력 저하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부득이 조달단가보다 높게 가격이 결정됐으나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A4 복사용지는 1만6100원에서 1만5500원으로, B4 복사용지는 2만41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내렸다.

말과의 교감속에 장애를 넘어 자유를 얻는다

장애재활승마 프로그램 '호응'

"말 위에서 건강과 행복 찾길"

"말 타면서 장애를 이겨 나가요."

제주지역 '준재활승마봉사대'가 진행하는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장애아동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재활승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승마를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스포츠 재활 요법이다.

말의 움직임은 기승자에게 적절한 긴장과 균형 감각을 주고 10분에 약 500~1000회 정도의 전후, 좌우, 상하의 신체반응을 주어 장애인이 마치 본인의 두 다리로 직접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전신운동 효과는 물론 심폐 기능과 근력강화 등의 치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살아 있는 말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제주도지회인 준승마아카데미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결성한 '준재활승마봉사대'가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준재활승마봉사대'에는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자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말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1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8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승마장이 실내여서 추운 겨울에도 아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시 휴식을 위해 말에서 내리는 수민(10·가명)이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다. 2회부터 5번째 참여하고 있는 수민이는 처

음엔 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TV 등에서 말을 보면 반가워하며 말 타는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다.

임준석 회장은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말 위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아 이들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대원의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독일, 호주 등 재활승마가 앞선 국가들과의 교환교육 등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11-696-6355, 010-6744-1376.

〈조순옥 명예기자〉

청소년야간아웃리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는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부경찰서 등과 함께 제주시청 주변 지역에서 청소년 야간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이번 연합 아웃리치는 졸업 시즌을 맞아 청소년들의 일탈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상인들에게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연합 아웃리치에서는 늦은 밤 시간대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30여개 업소를 방문,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전화 1388 홍보 포스터 등을 붙였다.

소/식/마/당

제일지역아동센터·한화리조트 사랑의 후원 협약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영식)와 한화리조트 제주가 1월 8일 후원 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외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화리조트는 2008년 1월부터 제일지역아동센터에 매월 20만원씩 정기적 후원을 해주고 있다.

후원금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별 테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는 1월 24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회원기관 36곳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신흥지역아동센터 석건 시설장이 새 지부장에 선출돼 2년간 제주지부를 이끌게 됐다. 또 지부 사업 및 예·결산 심의도 이뤄졌다.

거린사승봉사동아리, 충남 태안서 봉사활동



탐라대학교 거린사승봉사동아리(초대회장 강홍순)는 2월 24~25일 이틀간 국내 최악의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모래세척 및 산재폐 있는 유류 흡착포 제거활동을 벌였다.

거린사승봉사동아리는 제주를 포함해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봉사단체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영송학교 2007학년도 졸업식



제주영송학교(교장 김영욱)는 2월 14일 본교 어울림 터에서 2007학년도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 유치부 1명, 초등부 15명, 중학부 17명, 고등부 20명 총 53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고, 특히 고등부 졸업생들은 파란색 졸업가운을 입고 단상에 차례로 올라가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인효원 보은의집·실버하우스 온천나들이



인효원 보은의집·실버하우스는 지난해 12월 일일호프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어르신 17명을 모시고 1월 31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온천나들이를 다녀왔다.

인효원은 이번 온천나들이가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온천나들이를 가지 못한 노인들은 도내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하도 철새도래지 탐조교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황호민)는 구좌읍 하도리 일대 습지에 찾아온 겨울철새를 관찰하기 위해 1월 18일과 1월 28일 이틀간 구좌읍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얻어 철새 탐조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탐조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직접 철새의 먹이도 주고, 철새들을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진지하게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희망의메아리연주회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이시권)는 2월 1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초청 희망의 메아리' 연주회를 가졌다. 지구촌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어린이와 풍성한 삶을 나누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 합창단은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노래와 선율을 선사했다. 1960년에 창단한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프리마돈나 홍혜경,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 굶직한 스타를 발굴한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성안노인복지센터서 3년째 봉사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2006년 성안노인복지센터에 승합차 기부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3년째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휴일도 기꺼이 반납한 채 매주 화요일 혼자 사는 65명에게 맛있는 밀반찬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기업의 특성상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일이다. 또 성안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야외나들이 등의 사업에도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오물락조물락 만져보니 신기해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제주지회(회장 양장성) 키움사업단이 운영한 ‘방학중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

키움사업단은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협약식을 맺은 초등학교(대흘·평대·종달·세화·하도초등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풍선아트와 오물락조물락(폴리머클레이), 북아트 등을 주 1회 1시간씩 실시했다.

폴리머클레이로 거울을 만든 이현주(대흘초 5년) 어린이는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재료들로 다양한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다”며 활짝 웃었다. 박성은(세화초 6년) 어린이는 미니북 핸드폰걸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 담당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방학중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 ‘호응’ 키움사업단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의 장 마련”

작품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됐다”며 키움사업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키움사업단 박미란 사회복지사는 “방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사업단은 ‘키움문화동아리 프로젝트’로 축구동아리, 밴드동아리, 예쁜손글씨 pop동아리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추영민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 (2) 금강축산유통



“더 많은 봉사활동 못해 아쉬워”

2월 16일 제주시 도두에 위치한 (주)금강축산유통 (대표 안성)을 찾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었던 안 대표는 2004년 5월 길을 지나다 우연히 푸드뱅크 차량을 보고 연락을 해 인연을 맺게 됐다.

안 대표는 지난 4년간 푸드뱅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육류를 후원하는 것 외에도 라이온스클럽 활동을 통해 집수리 자원봉사, 보행보조 기사업, 개안수술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설과 추석에는 도두 지역 노인들에게 고기와 술을 제공하는 등 늘 나눔을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도 안 대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바빠다보니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0여년 전 제주에 처음 내려와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직

원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안 대표의 올해 목표는 “자신만을 바라

보며 생활하고 있는 30여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회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봉사와 후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 대표는 푸드뱅크에 대해 “푸드뱅크를 몰라서 물품을 기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며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기탁의 지역편차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는 “작년 6월에 문을 연 금릉부산물가 공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을 한림지역에 후원하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안 성 대표

알/림/마/당

■ 가롤로의집 입소자 모집

지적장애인시설 가롤로의집은 2월 11일자로 정원(36명) 변경을 신고해 입소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정원 30명 이상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벌인 가롤로의집은 생활인들이 재활 및 자립생활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기본인 그룹홈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에서 교육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064-723-0245.

■ 사랑의 위탁가정 모집

제주가정 위탁지원센터는 도내 요보호 아동들을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필 ‘사랑의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결혼해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 줄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064-747-3273, 홈페이지=www.jeju-foster.or.kr

■ 29일 흥익핸드벨콰이어 창단 연주회

흥익핸드벨콰이어 창단 연주회가 오는 29일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흥익핸드벨콰이어는 지난 2002년 아산복지재단 지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핸드벨 페스티벌 아시아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해 제주프라임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천상의 화음을 선사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행복”

가톨릭사회복지회, 제3차 감마영성교육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2월 18일 김광숙(전진상 영성시목센터 책임자)씨를 강사로 초청, 가톨릭회관에서 산하 시설(제주애덕의집, 가롤로의집, 일배움터)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제3차 감마영성교육을 실시했다.

김광숙씨는 “감마영성 교육은 나와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체의 변화로 옮겨가게 한다”며 “개인과 조직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삶의 본질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고 개인과 조직을 총체적으로 진단,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조직체내 컨설팅 능력을 키워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성원 합의과정을 통해 공동선을 만드는 방법을 체험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깨달았고 나로 인해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06년부터 감마영성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을 일깨우고, 조직의 비전 및 공동목표를 수립하는 등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일할 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마영성교육은 1995년부터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감마교육(GAMMA·총체적인 경영교육)이 감마(感摩·감사하는 마음을 연마하는)영성운동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경영혁신 모델을 영성적으로 심화시켜 일터에서의 영성을 살려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살맛나는 공동체,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교육이다. <이소영 명예기자>



1월 식품기탁자 명단·수량



▲SMC던킨도너츠=도넛 4000개
▲명당양과(신제주)=빵 300개
▲제주물류빵집(품과도르)=빵 400개
▲바로방베이커리=빵 400개
▲심심부식=김치 60kg
▲한라떡집=떡

30kg ▲(주)금강축산유통=육류 100kg
▲(주)서찬문축산=육류 120kg
▲(주)신세계이마트=통조림류 20개
▲동아오츠카(주)=음료류 90상자
▲(주)대상=양념류 5상자
▲산방머곡=쌀 10kg 20포대
▲CJ(주)=기타식재료 10상자
▲(주)오뚜기=부식류 244상자
▲롯데칠성=음료류 552상자

제4회 라이온스배 점자·컴퓨터활용 경진대회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기초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2월 19일 ‘제4회 라이온스배 점자·컴퓨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점자·컴퓨터 경진대회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지원으로 열렸다.

대회에는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점자경기와 컴퓨터경기,

점자정보단말기경기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에서 점자도서 100권을 기증했다.

다음은 수상 결과

▲점자경기 부문=1위 조연화, 2위 박경빈, 3위 김재성
▲컴퓨터활용 부문=1위 고광자, 2위 송영기, 3위 임효숙
▲점자정보단말기 부문=1위 진대원, 2위 문혜신, 3위 양봉호

Column 칼럼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제주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창업 자금 등을 지원·관리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운영방법 및 관리에서부터 기금조성, 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제주형 모델로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이 제도가 과연 어느 만큼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못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소외계층 관리에 성패 달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단순 자금지원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등 지속가능한 복지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 줌은 물론 경제

창출 능력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금융도움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의 손길이 뒤따르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외계층들에 대한 자활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및 관리가 얼마만큼 잘 이뤄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를 난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에서 빈곤층의 자금지원과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역시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 주도 운영으로 인해 관리 부분이 제외된 금융지원 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지원 자금에 대한 회수부분도 아직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소액 창업자금 지원과 의료비, 생활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운영의 내실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의 또 다른 축을 형성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

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꿰느냐하는 데 있다.

‘자활기동’으로 우뚝서야

모든 일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 사업 역시 처음부터 거대하게 일을 벌여놓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초 자료 조사 및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주체의 문제, 기금 조성, 지원 대상자 범위, 중점 지원사업 분야, 지원 규모, 미회수금 관리, 지속가능한 교육·컨설팅·사후관리 방법, 지원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전문 봉사자 조직관리 및 조직 운영비 확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디트제도가 제대로 된 도입과 정착을 통해 제주의 수많은 빈곤층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튼튼한 ‘자활의 기동’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寄稿 기고

“자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병’을 치유하자”



허 철 훈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곤,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며 ‘성장파와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통한 복지 재원으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자활 촉진기대

작년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자활급여법 제정추진에서 나타나듯이 올 한해는 자활지원체계 개편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자활지원 체계와 자활사업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도 공공에서 어려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앞으로의 복지패러다임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방법을 벗어나야 복지병을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된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입안,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빈곤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시드머니(seed money)를 제공해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을 퇴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Grameen)은행과 은행 총재인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골마을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27달러를 주민들에게 빌려준 계기가 된 그라민은행은 현재 37개국 9200만명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 가난한 이웃에 소액을 대출하여 스스로 자립하게 하여 빈곤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 온 노력이 정치적인 평화에 못지 않은 경제적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로 일을 통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도에서도 무담보·무보증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를 금융 소외계층까지 확대해가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종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용관리자를 제외한 전가구(신용관리자 포함)를 융자금 확대해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T/F 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프로그램 기동으로 복지병을 치유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의소리

‘칭찬의 위대한 힘’

직장에서 시행하는 ‘독서경영’이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받게 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손에 들고,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는 막막함이 앞섰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나는 책을 읽지 않았었다.

조금은 짜증스런 마음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참 잘 읽었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책의 제목에서 강조음으로 표현되는 ‘칭찬’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단어이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뒤통수치기 반응(사람들이 잘못된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잘못을 지적하는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무척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고래반응(사람들이 잘한

일을 찾아내는 방식)’을 나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 다짐과 결의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우리 아이들에게 ‘무반응’, ‘뒤통수치기 반응’만을 보여줬던 것 같아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꼈다. 칭찬을 한다고 했어도 사소한 일에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때의 칭찬은 너무나도 인색했던 것 같다.

아이들 개개인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 인지하면서도 똑같은 결과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같다. 앞으로 아이들 개개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부지런히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칭찬할 일을 사소한 것부터 찾아 칭찬을 해주며, 잘못된 일의 경우는 전환반응을 사용하여 정확히 짚어주되, 아이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과 격려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분명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웨스가 동료들,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우선 ‘고래반응’에 대해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며 약속을 하여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싶다.

▲업무적용의 구체적 방법 제시

담당 아동과 생활지도원간, 직원들 간에도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음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자면 많이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준다면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예를 들면, “♡♡선생님, 아침에 식기 씻을 때 옆에서 도와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일찍 등교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라는 감사의 칭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칭찬은 잘한 일에 대해 칭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라는 아주 큰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제주보육원 사회복지사 강 나리)

“노인성질병 범위 협소해 보편성 훼손”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토론회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등의 주최로 2월 22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론자별로 요약, 정리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주최로 2월 22일 대구에서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7만9천명 양성가능 인력수급 문제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

손건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설인프라 부족과 요양보호사 양성 문제를 현안 과제로 꼽았다.

손 정책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요양시설 전체 충족률은 94%이지만 수도권은 85%에 그쳐 3000병상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노인시설확충 예산을 수도권에 집중 지원하고, 현재 신속중인 시설의 개원 일정을 앞당기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시설은 지역별 불균형 현상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설치비 부담이 가장 큰 주·야간보호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 가정형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해 기존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관에 병설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손 정책관은 “오는 7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수요는 최대 6만9000명, 최소 2만2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6월까지 요양보호사 1급 기준으로 2

만7000명을, 경력자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7만9000명을 양성할 수 있어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요양등급 제외자 대비책 마련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남구시범사업 추진현황

정원재 대구시 남구청 부구청장은 장기요양보험 필요성으로 ▲급속화 고령화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장기입원 증가 ▲방치된 노인 증가 등을 들었다.

정 부구청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로 노인복지 수혜자 확대, 일반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변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꼽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저조(경증자에 대한 서비스 부재) ▲노인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미비 ▲지역협의체 역할 및 각 기관별 의견수렴 경로 부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비현실화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부구청장은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 인 홍보와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등급 제외자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논리에 함몰돼 제도본질 훼손 우려”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제언

김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 제정 이후 제도 보완작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법 시행을 기대하기에는 제도의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인정자는 1~3등급지만 수급자로 하고 등급외(경증)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편입시켜 사실상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돼 있다”며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협소해 장기요양 인정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훼손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원칙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틀을 바꾸지 않는 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맞는 급여내용 및 수준도 중요하지만 수가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안정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리와 주도권 논쟁에 함몰돼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제도 등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케어매니저 확보 위해 유휴인력 활용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김현실 대구한대 간호학과 교수는 “요양등급판정에 앞서 대상자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인지 요양보험 수급 대상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간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성된 유휴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노인 전문 간호사 양성과 간호대학에서 주관하는 방문간호 조무사 양성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과 각 시설 유형별 입소 기준 및 적정 인력, 시설 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원과 요양보험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노인의 건강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인건강 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확충 관건 시설 지원 강화해야”

▲성공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

김석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며 “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지불한 대상자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모형은 단기보호 16명,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가 26명 일때 시설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광역시의 주간보호시설 중 정원이 26명 이상인 시설은 한 곳도 없다”면서 “이는 곧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머지 않아 재정수지 악화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회장은 주간보호시설 정원을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기존 시설 기능 강화를 꼽았다.

이어 “아직도 수가체계와 급여대상자 범위, 비급여 항목, 평가판정 기준 같은 제도의 틀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 확보 위한 체계적 교육 필요”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논의

서병철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일선에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적 제도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

클릭 한번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의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을
가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정 제주 그대로 -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

삼다수감귤주스 • 삼다수녹차 • 감귤초콜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종류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 집니다.

제주 **삼다수** 감귤

감귤주스 1.5ℓ
1세트 (2병)

2,000원



제주 **삼다수** 녹차

감귤주스 150ml
1세트 (16팩)

4,000원



삼다수녹차 340ml
1세트 (8병)

6,000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선물용세트
특별판매!**

주문배달
구입문의 | 1577-3545, 064-764-3943